

전북지역 樓亭 및 寺刹의 借景에 관한 연구

허 준·노재현·장혜화*
우석대학교 토목조경학부·우석대학교 대학원
(2003년 7월 14일 접수; 2003년 9월 17일 채택)

A Study on the Borrowed Landscape of Arbors and Temples in Jeonbuk Province

Joon Huh, Jae-Hyun Rho and Hye-Hwa Jang*

Division of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Chonbuk 565-701, Korea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Chonbuk 565-701, Korea

(Manuscript received 14 July, 2003; accepted 17 September,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borrowed landscape in traditional arbors and temples in Jeonbuk province. And this study is attempted to widespread the width of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landscape borrowing method for contributing in modern reception and cre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culture.

For this, 30 traditional arbors and 30 traditional temples in Jeonbuk province were selected.

The orientation of the place of view point, distance, vertical and horizontal angle were surveyed for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borrowed landscape. Furthermore main element, auxiliary element and a media of borrowed landscape were surveyed also.

Two hypothesis were established for verifying the feasibility and real effectiveness of research results.

First, the willingness of borrowed landscape shall be being in establishing traditional arbors and temples.

Second, this willingness of borrowed landscape shall be accomplished in arbor space more positively than in temple sp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emples, the surrounding landscape adapted in Buddhism principles are principally expressed, whereas in arbors, congregating landscape, variety landscape, background landscape for establishing good view point and enframed landscape are induced for making authoritative landscape as various borrowed landscape techniques.

2. The distance to borrowed landscape in temples is involved in far landscape region, whereas that in arbors is in middle and near. In comparative with temples, the arbors shows variety in distance to the borrowed landscape objects.

3. Down view borrowing is used generally in arbors, whereas upper view borrowing is used in temples at the view angle to the borrowed landscape objects.

4. Borrowed landscape objects are more considered factors than view scope in arbors.

Main elements for borrowing landscape are very various arbors, but those are simple as mountains and peaks in temples. And natural elements are much more than artificial things in arbors as a media of borrowing landscape in comparative with temples.

Key word : Borrowed landscape, Traditional arbors, Traditional temples, View

Corresponding Author : Joon Huh, Division of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Chonbuk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3
E-mail : snipef16@woosuk.ac.kr

1. 序 論

借景(borrowed landscape)이란 말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경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이 처음 시

도된 것은 중국 명대의 計成이 저술한 『園冶, 1636』이다. 計成(1582~?)은 借景을 가리켜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夫借景. 林園之最要者也. 〈借景〉]'이라고 하였는 바, 借景을 원림조영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借景은 중국의 전통원림과 중국인들의 경관관 및 심미관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¹⁾ 우리 나라에서도 사계절 변화하는 산수경관을 부지 내로 끌어드리기 위한 외부경관에 대한 능동적 경관처리방법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2)}

전통정원 중에서 정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은 입지선정의 기준 및 조망의 대상과 조망 설정을 위한 향의 선택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借景을 통한 물리적 경계의 확장을 통해 자연주의적 조망경관 획득의 기회 폭을 넓히고 있음이 여러 연구^{3~5)}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안계복⁴⁾은 한국적 전통정원양식의 특성을 「경관처리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누정에서 특정한 경관(자연)을 시각 대상물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개념의 적용을 논하였는 바, 虛, 遠景, 聚景과 多景, 그리고 環景 등의 경관처리기법상의 용어는 차경의 형태와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보다 구체화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한편 수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조영되는 사찰 및 암자의 입지선정은 여러 가지 영향인자가 배경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의 교리적 배경은 물론 靈地信仰으로서의 山岳崇拜思想과 擇地法으로 작용하였던 裨補思想 역시 사찰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또한 공간구성의 변화도 동반되는 바 석단, 계단, 화계 등의 지형경관요소와 계류와 다리, 연지 및 석조물 등의 점경적 요소가 원내에 혼재됨으로써 특별한 경관에 대한 조망의지는 누정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간구성기법상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계층적 질서 추구를 위한 공간축 설정을 통해 사찰 역시 자연순응적이건 의도적이건 외부 경관의 「내적 질서로의 合一」을 기도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국내외에서 借景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유직과 황기원⁷⁾ 그리고 이유직과 조정송⁸⁾이 「園冶」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설계가와 이용자간의 의사 전달 방식을 「意境」이라는 용어선택을 통해 미학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유직^{1,2)}은 「園冶」에 나타난 원림조형이론 중 특히 借景이론을 중점적으로 논하였는 바 借景의 의의, 원칙은 물론 借景대상의 내용과 유형 등의 형식적 고찰을 시도하는 한편 주체의 조형 행위론을

조영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힘의 파악을 통해 원림조형이론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進士五十八⁹⁾은 실증적으로 13개 일본 借景정원을 대상으로 차경구조분석을 시도하여 借景기술의 본질과 造景·修景·借景의 3단계론적 자연관을 일본 정원의 기술적 경관처리기법으로 설명하였다.

借景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園冶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공간 외부의 경관을 끌어들이기에 적절한 위치선정과 시점에서의 경관 매력물을 더욱 강조하여 보이기 위한 시점 및 시점장 확보 등 지형성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수반하여 건물의 양식과 위치, 향 등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듯 借景을 중심으로 한 경관구도에 대한 처리기법의 이해는 전통정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 단서이며, 계획·설계 관점에서는 「전통성」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의 전통공간·경관기법에 관련된 연구 등을 볼 때 借景의 중요성은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전개방법 등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借景을 연구의 주제 또는 소재로 삼아 이에 따른 차경구조 및 특성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조경의 경관구조를 실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借景의 구조 및 특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자 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누정 및 사찰에 있어 차경구조의 특성과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전라북도 내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역사성과 전통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누정과 사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전통적 차경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통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경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처리기법의 이해와 탐구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研究方法

2.1. 연구범위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누정 및 사찰 중 비교적 원형 보존이 양호하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누정(亭·樓·堂)과 寺刹 및 庵子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들 2개 유형의 건축물 내부에서 또는 외부공간 특히 전정에서 조망되는 경관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또 이들 2개 양식의 차경구조 및 그 처리수법의 상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조망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인 주시점장의 좌향, 시거리와 조망수직

전북지역 樓亭 및 寺刹의 借景에 관한 연구

Table 1.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borrowed landscape at pavilion area

NO.	누정명	주차경	부차경	차경매체	배경	원내경	형태		수직각 (+)	수평각	주건물의向	축대높이 (m)	소재지
							거리 (km)	고차차 (m)					
1	錦水亭	蓼川	교룡산	·	금암봉	·	0.1	30	-10	0	NE60	·	남원시
2	廣寒樓	閔通山 (332.5)	옥녀봉	柳	·	돌자라, 연못, 정각	4.6	232.5	+1	7	S190	·	남원시 천거동
3	龍宮亭	龍宮瀑布	장백산	松	다름재	樺, 松	0.003	10	-22	0	W280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4	無盡亭	蠶津江	서리봉	橡, 竹	방산	·	0.06	20	-10	0	S200	·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5	涵碧亭	왕궁 저수지	용화산	槐	봉실산	槐, 水精木, 丹楓, 木百日紅, 비좁나무	0.5	70	-7	0	N340	0.5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	醉香亭	德津湖	건지산	·	가련산	松, 槐	0.03	1.2	-5	0	E100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7	寒碧堂	全州川	남고산	·	발산	·	1.3	10	-13	0	S190	·	전주시 완산구 교동
8	君子亭	연못	남산	·	천태산	·	0.008	2	-1	0	E90	0.2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9	松亭	將軍峰 (280)	왕자산	松	항가산	松, 橡	12.25	200	+5	2	SE130	·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0	披香亭	蓮池	새을계	·	태창리 마을	蓮池	0.015	5	-5	15	S170	0.2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1	後松亭	飛鳳山 (140)	동진강 상류	·	항가산의 松竹	·	2.8	60	+2	5	NE60	·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2	寒風樓	오동계 (660)	절산	·	무주읍내 칠봉산	·	3.4	340	+12	6	S170	·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3	龜岩亭	赤城江	성미산	木百日紅	풍악산	木百日紅	0.25	30	-10	0	W280	0.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	歸來亭	大東山 (150)	화산	·	남산	·	1.1	30	+1	5	E100	·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5	樂德亭	秋嶺川	추월산	松	백방산	松林	0.02	15	-18	0	S180	·	순창군 북홍면 상송리
16	漁隱亭	赤城江	두류봉	담장	풍악산	朴樹	0.035	10	-9	0	S170	0.6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7	迎狂亭	秋嶺川	백방산	·	장군봉	·	0.01	10	-8	0	SE140	·	순창군 쌍치면 둔진리
18	虎溪亭	洪山 (150.8)	용천 남성들	·	남계리 뒷산	·	0.8	20	+5	16	N20	·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
19	南溪亭	母岳山 (793.5)	모악산	담장	남계산	·	3.1	645	+4	10	SW240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20	光霽亭	洗心川	마을앞산	槐	뒷산	槐	0.25	15	-17	20	S180	1.5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21	九老亭	三溪川	삭산	·	삼계석문	松	0.2	120	-22	0	NE45	0.5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22	晚翠亭	단월계 (299.7)	앞산	담장	·	·	1.5	60	+11	4.5	SW230	0.2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
23	睡雲亭	병풍계 (344)	·	담장	뒷산	銀杏, 槐	1.2	94	+16	55	SW240	0.2	임실군 신태면 금정리
24	五槐亭	도리봉 줄기 (281.7)	개울	槐	삼은리 뒷산	槐, 兒風乾, 朴樹	1.0	150	+12	14	SE130	·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25	雲樓亭	관촌 전경	박이피산 오원천	·	용암산 사선대	·	1.0	10	-2	10	N340	·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26	白樂亭	長溪川 (풍천과 석벽)	백화산 노평들	·	삼봉리	槐	0.01	8	-15	0	SW210	·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27	睡仙樓	五院川	매봉	槐, 檜	부귀산 줄기	槐, 檜	1.12	26.8	-8	6	S170	·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8	永慕亭	덕태산	앞계천	槐, 橡	송림봉 줄기	槐, 橡	3.5	713.2	+10	0	SE150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29	臥龍庵	朱川	앞산	槐, 臥石	주양리	槐	0.008	5	-2	0	E90	·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30	羽化亭	부귀산 (806.4)	개실	槐	우화산	槐	3.0	500	+6	27	NW330	0.3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각, 수평각 파악을 통한 차경구조를 조사하였고 주차경요소(주차경), 부차경요소(부차경) 및 차경매체의 조사를 통해 차경내용을 분석하였다.

2.2. 연구 가설의 설정

2.2.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hypothesis)을 설정하였다.

첫째, 전통공간 특히 누정 및 사찰의 건립시 특별한 借景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풍수지리적 비보개념을 통한 입지선정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좋은 경관, 조망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한 차경의도를 포함한 설계개념이 이들 전통원림 내 내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借景 의도는 사찰공간에서 보다 누정공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특히 건물의 주축선과 차경축이 이루는 수평각 및 수직각 그리고 내용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가설 검증을 통해 예측의 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을 강화하는 연역적 연구방법의 태도를 취하였다.

2.2.2. 용어의 정리

개념의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물론 기준에 대한 타당성(criterion related validity)을 높여 연구 결과의 재논의 및 본인 및 타연구자 등의 후속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점 용어(key word)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전개하였다.

2.2.2.1. 借景

借景이란 장(場)의 경계(울타리) 밖에 있는 자연 및 인공경관요소가 조사공간 내에서 우세하게 조망되며 작성자 등 경관주체의 의지에 따라 끌어들이는 경관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성자의 의지 등 기록되어진 실증 자료가 미비하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경관조영을 위해 긍정적으로 시지각되는 외부경관을 借景으로 정의한다.

2.2.2.2. 主借景과 副借景

누정 및 사찰의 전정에서 볼 때 연구자(또는 관찰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우세하게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차경을 주차경이라 정의하며 주차경을 돋보이게 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열세한 차경요소 또는 이들 차경요소의 합을 부차경으로 정의한다.

2.2.2.3. 聚景

먼 곳에 있는 여러 경관들을 한곳에 모은다는 개념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차경객체의 경관구성 요소가 다수여서 상대적으로 특정 경관요소의 비중이 강조되지 않을 경우, 특히 주차경요소 및 부차경요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2.3. 연구대상지 선정

전라북도 14개 시군 소재 누정과 사찰 및 암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1) 국보, 보물, 시도유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 등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

2) 20C 이전 조영된 대상으로서 역사성이 깊고 비교적 원형 보존이 양호한 곳

이에 따라 기지정 문화재로 누정 23개소와 사찰 26개소 이외 2)의 조건에 합당하는 각각 7개소, 4개소를 추가하여 누정 30개소, 사찰 및 암자 30개소 총 60개소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ocp.go.kr>)와 전라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의 문화재 자료를 검색하였고,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해 발간된 전국건축문화자산 전북편(1999)과 문화재안내문안집 전라북도편(1988)에 수록된 누정 및 사찰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2.4. 조사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해당 공간에 대한 입지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변경관 등을 검토한 후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구비하여 전체 대상지를 현장조사 하였다.

현장조사는 운량 20% 이내의 쾌청일을 택하였으며 각 조사공간의 경관내용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특히 누정 및 사찰의 주요 시점장에서 정면(주차경)과 측면경관(주차경 또는 부차경), 후면의 경관(배경)을 담았다.

차경구조를 밝히기 위해 조사된 내용과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4.1. 주시점장의 좌향

누정의 경우 누정 현판 정면을, 사찰의 경우는 대웅전, 극락보전과 같이 본존불이 모셔져있는 주건물 전면 1~2m 이내를 시점장으로 설정하였다.

주시점장의 좌향은 1/25,000 지형도에서 대상지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도의 정북방향과 나침반의 자북(N)을 일치시킨 후 건물 주축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은 뒤 방위각을 기록하였다.

팔방의 향을 표시할 때 E, W, S, N는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이 아니라 각각 定向에서 22.5° 씩 양방향

으로 여유를 주어 각 45°의 범위를 갖게 책정하였다. 나머지 향인 NE, SE, SW, NW도 마찬가지로 45°의 범위를 갖게 하였다.

2.4.2. 차경형태(주차경대상까지의 거리 및 각도)

차경 대상을 1/25,000 또는 1/5,000 지도상에서 파악한 뒤 주시점장과 주차경대상까지의 도상거리를 스케일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차경대상에 대한 수직 각은 SOKKIA 핸드레벨을 사용하여 주시점장이 되는 지점에서 借景 대상을 바라다보고 서있을 경우 성인 남자의 평균 눈높이인 160cm에서 측정하였다. 이 때 산이나 산봉일 경우는 산정과 핸드레벨의 수평선을 일치시켜서 측정하고, 강이나 호수일 경우는 강이나 호수의 중심부분을 내려다보고 핸드레벨의 수평선과 일치시켜서 측정하였다. 양각(仰角)일 경우는 +, 부각(俯角)일 경우는 -로 기록하였다.

2.4.3. 借景 수평각

수평각은 지형도를 이용하여 건물 주축선과 주차경 대상까지의 차경축이 이루는 내각을 측정하였다. 참고로 주시점장에서 바라다 보이는 주대상이 주시점장의 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면에 있을 때 수평각은 0이 된다. 특히 주차경대상이 蛇行되지 않는 강(江)이나 천(川), 바다, 호수나 저수지 등일 경우에도 수평각은 0으로 보았다.

2.4.4. 借景 요소

주시점장에서 조망할 때 주로 전면부나 측면부에 보이는 산이나 산봉, 앞에 흐르는 강이나 계류, 또 너른 들이나 뜰, 인공지원, 저수지, 바다, 자연경물(폭포, 암) 등의 주차경대상 보조적으로 보이는 부차경대상을 파악했다. 또 배경이 되는 산이나 깎, 마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상에서 찾아 정확한 지명이나 명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借景 및 聚景매체가 되는 수목이나 건물, 여러 인공요소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2.5. 분석방법

전라북도 소재 누정 30개소, 사찰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서적 및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3,10,11)} 취합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빈도분석 위주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3. 結果 및 考察

전라북도 소재 총 60개소의 누정 및 사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한 사찰과 누정에서의 차경구조 및 내용을 각각 Table 1과 2에 종합정리하였다.

3.1. 주시점장의 좌향분석

조사 누정 및 사찰공간의 주시점 및 시점장은 누정의 입구 또는 본존불을 모신 대웅전(대웅보전) 등의 건물 전방 2m이내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건물의 횡축을 작도하여 건물의 좌향을 조사한 뒤 그 내용을 분석·재정리하였다. 편의상 Table 3과 같이 팔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누정의 경우 S가 9개소(30.1%)로 가장 많았고, E, SE, SW가 각각 4개소(13.3%), 그리고 N 및 NE가 각각 3개소(10.0%)로 밝혀졌다. 또한 W는 2개소(6.7%), NW는 1개소(3.3%)였다. 한편 사찰의 경우에는 S가 15개소(50.0%)로 가장 많았고, E가 5개소(16.7%), SW, W가 각각 3개소(10.0%), SE가 2개소(6.7%), 그리고 NW, NE가 각각 1개소(3.3%), N은 한 곳도 없었다. 사찰의 경우 남향을 중심으로 남동, 남서향이 20개소(66.7%)를 차지한 반면 누정의 경우 남향을 중심으로 남동, 남서향이 17개소(56.7%)로 나타났다. 이는 폐쇄공간으로서의 정주공간인 사찰건물과 개방공간이며 비정주 또는 불특정 정주공간인 누정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조나 방풍보다는 경관조망이 주요 계획개념이었던 누정의 배향 및 좌향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누정의 경우 생활공간으로서의 미기후적 측면이나 보건적 측면에서도 극히 불리한 북향을 중심으로 북동, 북서향이 7개소(23.3%)로 밝혀진 것은 사찰의 경우보다 더욱 적극적인 차경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누정의 경우 우화정은 북서향(NW)의 좌향을 취하고 있었으며 금수정, 후송정, 구로정은 북동향(NE)의 좌향을 보였는 바, 이들 누정의 借景 주경과 부경은 대부분 폭포 및 저수지 그리고 川 등이 보이거나 시지각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계류가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동오³⁾의 전라남도 정자원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정자의 좌향별 출현율 중 SE, S, SW 등 3개향에 해당되는 정자가 61.2%로 높게 나타난 바,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산지사찰의 입지는 대부분 불교가 지닌 교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靈地信仰으로서의 숭산사상이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특히 사찰의 조형을 위한 터잡기에는 불교적 개념의 입지관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되며,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의 개념 또한 작용인자가 되었을 것이다.¹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 조사대상인 대부분의 사찰에서도 전통 사찰의 입지성의 중요한 요인인 지형적 조건이 불교의 종교적·상징적 구현을 위한 배경적 구도로 등장하고

Table 2.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borrowed landscape at temple area

NO.	사찰명	주차경	부차경	차경매제	배경	원내경	형태		수직각(±)	수평각	주건물의향	축대높이(m)	소재지
							거리(km)	고차차(m)					
1	佛智寺	鷲城山(200)	.	법종각, 槐	망해산	법종각, 槐	2.0	80	-1.5	47	SE130	1.3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2	上柱寺	다망들	익산시내	법종각	취성산	槐, 木百日紅 법종각	3.5	50	-2	13	E110	0.6	군산시 서수면 측동리
3	歸信寺	母岳山(343.4)	모악산	들담, 槐	모악산	木百日紅	1.5	203.4	-10	35	S180	1.2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	金山寺	母岳山(274.6)	모악산	보제루	모악산	노주, 석탑 사리탑, 석등, 당간지주	1.7	124.6	-7	5	SW220	1.8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5	望海寺	西海	창암산	杉樹, 종루	진봉산	朴樹, 木百日紅 종루	2.0	40	-3	0	NE60	0.2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6	天國寺	九城山(487.6)	.	丁橋	구봉산	.	0.8	47	-7	26	SW225	5.0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
7	善國寺	광대골산(200)	지리산	보제루	교동산	보제루	2.0	120	-4	14	E90	2.5	남원시 산곡동
8	寶相寺	天王峰(1915.4)	세석봉	담장	입석리 마을	석탑, 석등	12.5	1595	-7	24	S160	0.5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9	南原寺	龍華山(170.7)	.	일주문	제남리 마을	.	3.3	160.7	-15	5	S160	0.2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10	崇林寺	威耀山(240.5)	함라산	우화루, 담장	함라산	木百日紅, 석탑	2.2	160.5	-16	46	S170	2.0	익산시 용포면 송천리
11	南岡寺	完山七峰(163)	황방산	.	남고산	.	2.0	77	-1	16	W280	1.6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2	東岡寺	共山(215.6)	남고산	杉	기린봉	요사채	7.9	4.4	-5	22	W270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3	內藏寺	西來峰(570)	신선봉	槐	장군봉	굴거리, 金松, 사리탑, 木百日紅 법종각, 槐 극락전, 명부전, 사리탑	1.1	310	-31	70	W290	1.0	정읍시 내장동
14	禪雲寺	飛鶴山(307.4)	창룡산	만세루	경수산	석탑, 木百日紅 만세루, 柿 당간지주	3.4	257.4	-18	2	S180	1.2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5	禪雲寺 內院宮	天馬峰(260)	낙조대	.	도솔산	.	1.5	120	-15	28	S190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6	禪雲寺 兜率庵	배면바위(314)	.	丹楓	도솔산	.	2.0	194	-10	14	S190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7	禪雲寺 東雲庵	黃鶴山(109)	경수산	.	구친봉	柿, 銀杏	4.9	49	-13	20	NW320	0.4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8	禪雲寺 石床庵	九皇峰(297.8)	.	.	경수산	柿	1.3	237.8	-6	38	E100	1.0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9	禪雲寺 鐵堂庵	靑龍山(314)	이상산	요사채	경수산	冬柏, 木百日紅 丹楓, 樺	3.2	154	-18	36	SW230	1.5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20	文殊寺	方丈山(733.6)	곤포봉	선방	문수산	冬柏, 종각 선방, 만세루	10.6	313.6	-11	2	E110	0.8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1	上院寺	文殊山(620.5)	동구산	.	방장산	木百日紅, 칠성각 보광전	7.9	360.5	-2	16	S170	0.9	고창군 고창읍 율곡리
22	安國寺	成芝山(992.2)	금해산	.	적상산	종각, 칠불전 당간지주	4.8	32.2	-1	45	S160	3.0	무주군 적상면 괴복리
23	開岩寺	下女峰(432.7)	상여봉	요사채	울금 바위	당간지주 웅진전, 木百日紅	3.9	362.7	-7	26	S190	2.5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24	來蘇寺	매봉(263.8)	갑남산	철선당	세봉	석탑, 半松 철선당	3.0	143.8	-15	64	S160	2.0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5	松廣寺	鷹峯山(378.1)	오목재	요사채	위봉산	석탑, 십자가	5.9	278.1	-16	13	S200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6	威鳳寺	遠登山(713)	학동산	정면루	위봉산	요사채, 木百日紅 삼성각, 松	4.3	383	-7.5	3	SE130	0.8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7	化巖寺	시루봉 줄기(400)	.	우화루	시루봉	우화루, 적목당	0.45	100	-8	6	S185	0.6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28	新光寺	烽火山(786.2)	법화산	요사채	성수산	槐, 칠성각 요사채, 명부전	4.9	336.2	-4	4.5	E90	2.5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29	古林寺	진안읍내	성수산	담장	부귀산	.	2.5	220	-6	35	S160	1.5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0	天皇寺	九峰山(637)	구봉산	檜, 銀杏	구봉산	석등	0.8	297	-20	33	S160	0.8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 2, 3,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전을 중심으로 내장사의 경우에는 장군봉을, 문수사의 경우에는 문수산을, 개암사의 경우에는 울금바위를, 정후면으로 하여(배경) 좌향하고 있다. 또한 내소사의 경우에는 세봉을, 그리고 위봉사의 경우에는 위봉산을 등지고 본전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산이 갖는 신성성과 불교의 우주관인 須彌山의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한 장소성의 배려이자 사찰 배경에 대한 차경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안계복⁴⁾이 정리한 누정의 경관처리기법 중 環景의 소극적 표현으로 산이나 산봉

을 위요공간적 요소로 적극 활용하면서 사찰의 수평적 중심이 수직적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익산 송림사의 경우 대웅전의 주 조망점이 세 개의 함라산 영봉 중 중앙 산봉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남향과 자연스럽게 일치된다.(Fig. 6 참조).

이에 반해 누정에서는 입지유형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정 차경대상을 의도적으로 원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기도가 더욱 돋보인다. 또 호계정(N20°), 금수정과 후송정(NE60°) 그리고 함벽정(N340°)과 운서정(N340°), 구암정(W280°) 등은 일반 건축물에서 일조 및 장풍 등에 불리한 북향, 북동향 또는 서향을 주향으로 하여 정자의 좌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향 E100°인 순창의 귀래정에서는 前景의 산과 뜰은 물론 강 및 멀리 원경으로서 연결된 산줄기가 경관의 일체를 조성하기 위한 차경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안의 우화정에서는 NW330°의 좌향으로 진산인 부귀산을 양감하여 개실 등 너른 뜰이 부감되어 펼쳐져 있다. 이들 정자는 특히 남산과 우화산을 배경으로 비교적 넓은 시점장을 확보한 채 입지하여 있는 것을 볼 때 안계복⁴⁾이 언급한 聚景을 중요한 차경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다채로운 경관요소를 원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Fig. 7, 8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배경으로서 산을 택하고

Table 3. Analysis of frequency to the bearing

Class Bearing	Pavilion (%)	Temple(%)	Total(%)
E	4(13.3)	5(16.7)	9(15.0)
SE	4(13.3)	2(6.7)	6(10.0)
S	9(30.1)	17(56.7)	24(40.0)
SW	4(13.3)	3(10.0)	7(11.6)
W	2(6.7)	3(10.0)	5(8.4)
NW	1(3.3)	1(3.3)	2(3.3)
N	3(10.0)	0(0.0)	3(5.0)
NE	3(10.0)	1(3.3)	4(6.7)
Total(%)	30(100.0)	30(100.0)	60(100.0)



Fig. 1. Rear view of Naeja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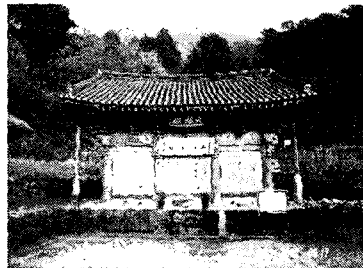


Fig. 2. Rear view of Munsoosa.



Fig. 3. Rear view of Gaeam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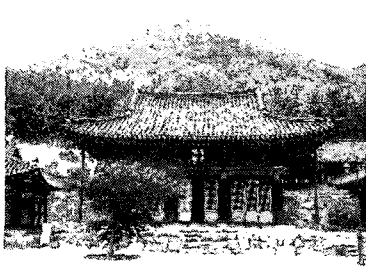


Fig. 4. Rear view of Naesosa.



Fig. 5. Rear view of Webongsa.



Fig. 6. Front view of Sunglim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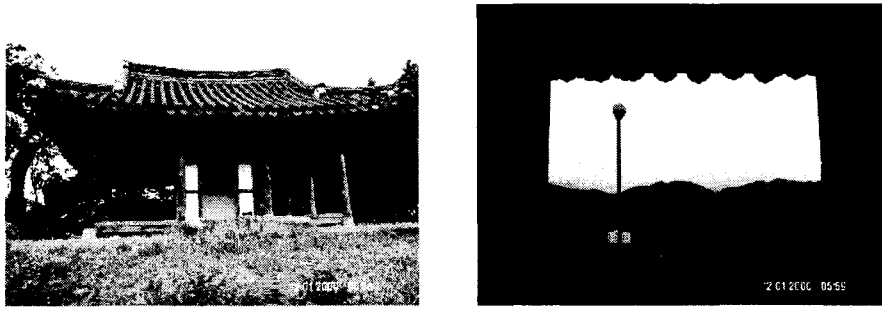


Fig. 7. Gweraejung and the landscape from front yard.



Fig. 8. Woowhajung and the landscape from front yard.

있으나 이는 차경축의 일환이 아니라 단순히 다양한 시점확보를 위한 시점장으로서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計成이 借景에서 논한 框景(enframed landscape)의 일환으로 누정의 문이나 기둥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요소들을 사진의 액자처럼 작용케하여 경관주체의 시각효과를 보다 강렬하게 하는 것으로 경관이 지닌 시적 정취와 사진의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詩情畫意]의 효과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찰에서의 건물 좌향은 입지성과 불교의 교리적 원리에 순응한 점층적 경관처리 및 소극적인 환경이 대부분 표현되고 있는 반면, 누정에서는 일반적 주거 입지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북동 및 북서향의 좌향배치도 과감히 도입되는 등 차경의도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는 경관탐구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聚景과 多景은 물론, 경관조망이 양호한 시점 및 시점확보를 위한 배경 설정과 框景 등을 통한 품위 있는 경관의 추구 등 적극적 경관도입을 위한 차경기법이 발견되고 있다.

3.2. 차경구조 분석

3.2.1. 조망거리

경관대상은 거리에 따라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보통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관해석의 경우 구체적 거리와 연결시켜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條原修¹²⁾는 K. Lynch나 P. D. Spreiregen의 인간의 표정, 동작 등을 보는 방법과 수립을 보는 방법을 고려하여 근경역, 중경역, 원경역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條原修가 제시한 근경역(400m이하), 중경역(400m~2.5km), 원경역(2.5km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조망거리 분석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정의 경우 借景대상까지의 거리가 400m 미만의 근경역에 있는 경우가 14개소(46.7%)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사찰은 2.5km 이상의 원경역이 16개소(53.3%)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정은 가까운 산이나 강, 계류 등 근경을 借景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사찰의 경우는 먼 산이나 산봉 등 주로 원경을 借景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공간의 차경구조는 누정과 비교하여 비교적 원경의 경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적 영

Table 4. Distance to the borrowed landscape

Class	Frequency(%)		Remark
	Pavilion	Temple	
Distance			
Under 400m	14(46.7)	0(0.0)	
400m~2.5km	9(30.0)	14(46.7)	
2.5km more	7(23.3)	16(53.3)	

향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누정의 경우에는 시각적 영향권은 물론 경관지배적 영향권 그리고 경관 대상의 질감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지극히 가까운 즉물적 영향권 등 다양한 차경대상에 대한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누정의 입지 및 차경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計成의 공간적 측면에 따른 借景에 있어 사찰의 경우에는 遠借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누정 등에 있어서는 隣借는 물론 隣借가 동시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누정에서의 차경대상까지의 거리가 400m 이내의 근경이 14개소로 46.7%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송정에서 바라본 주차경 대상까지의 거리는 12.25km로 비교적 원경의 경관역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찰에서는 차경대상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의 원경이 16개소로 53.3%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천국사와 천황사에서 보이는 주차경 대상은 입지 특성상 두 곳 모두 0.8km로 다른 사찰에 비해 비교적 가시거리가 짧음을 알 수 있다.

3.2.2. 차경대상의 조망각도

通口忠彦은 양각의 범주를 6°~10°로 말했는데 양각 9° 부근의 산이 갖는 의미로서 '스카이라인과 山腹을 함께 볼 수 있는 양각이므로 山容을 기반으로 하는 산이 되어 가장 좋은 양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양각을 가진 조망경관은 崇山思想으로서 산을 '우러러보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규범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또한 조망지점에서의 부각이 10°이내에 존재하면 시각적 일체감이 있고, 10°~30° 일 때 G. Cullen이 말하는 "거기"의 감각이 되고, 30°를 넘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감각을 느낀다고 하였다.

조망각도(수직각)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정의 경우 부각이 18개소(60.0%)로 나타난 반면 사찰의 경우 오히려 양

각이 24개소(80.0%)로 나타났다. 즉 이는 앞서 입지분석 및 조망거리 분석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두 개 양식의 차경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누정의 주차경대상이 강이나 계류 등이 많았던 것에 비해 사찰은 주차경대상이 산이나 산봉 등이 많았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자의 조영에 있어서 부각이 10° 이하인 시각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시점과 시점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각이 10°~30°인 "거기"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9개소(30.0%)로 둘 다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찰은 부각이 10°이내에서 6개소(20.0%), 10°~30°와 30° 이상에서 0개소로 나타났다. 사찰의 대부분도 시각적인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정에서 양각이 通口忠彦이 제시한 편안한 양각 범주인 6°~10°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2개소(6.7%)밖에 되지 않고 부각이 10°이내와 10°~30°가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누정의 경우에는 양각 보다는 내려다보는 부각경관을 더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에는 30.0%에 해당되는 대상이 앞서 말한 조망각도 범위에 놓여있음을 볼 때 누정과 는 달리 崇山思想이 결들여진 비교적 편안한 조망각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서 말한 양각 9° 부근의 대상지를 살펴본 결과 누정이 1개소, 사찰이 3개소로 나타났다.

Fig. 9, 10의 고림사 및 남고사에서 수직각이

Table 5. Analysis of vertical degree

Degree(°)	Class	Frequency(%)				Re
		Pav.	Tot.	Temp.	Tot.	
+	0~5	6(20.0)	12(40.0)	4(13.3)	24(80.0)	
	6~10	2(6.7)		9(30.0)		
	10~	4(13.3)		11(36.7)		
-	10이내	9(30.0)	18(60.0)	6(20.0)	6(20.0)	
	10~30	9(30.0)		0(0.0)		
	30~	0(0.0)		0(0.0)		



Fig 9. Main view from Gorimsa.



Fig 10. Main view from Namgosa.

각각 -6° , -1° 의 부각을 보였는 바 특히 이들 사찰에서 퍼져 울리는 저녁종소리는 전주팔경과 월랑(진안)팔경의 고림모종 또는 남고모종의 대상장이기도 하다. 입지특성상 산아래 읍내가 바로 펼쳐지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부각 -10° 이하의 경관이 갖는 시각적 일체감을 갖는 심리적 영향권내에서의 경우로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계복⁴⁾이 지적한 바와 같은 搨景의 경관처리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점 또는 시점장과 대상 또는 대상장이 상호 전이되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수렴된 경관을 원경기법의 심리적 효과로 재확산시키는 관점에서 입지 및 그 조망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計成이 논한 바와 같이 시선의 시각 방향에 따른 仰借와 俯借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누정은 俯借를 사찰은 仰借를 통해 경관 조망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보다 확실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3.2.3. 수평각 분석

주시점 또는 시점장에서 주차경을 연결한 차경 대상까지의 각도를 밝히기 위해 수평각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정의 경우 0° 인 경우가 16개소(50.0%)였으며 특히 10° 미만의 수평각을 갖는 대상지가 25개소(78.1%)로

나타난 바 이는 앞서 借景대상까지의 거리 및 차경 대상까지의 각도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경이 단순하며 명료한 거리내에 있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비학산(307.4m)을 주차경 대상으로 한 선운사와 방장산(733.6m)을 주차경 대상으로 한 문수사는 수평각이 2°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위봉사는 원등산(713.0m)을 주차경으로 3° 수평각 범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사찰은 20° 이상이 15개소(50.0%)로 누정에 비해 월등히 큰 수평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찰공간이 갖는 입지성에서 살림집과 마찬가지로 借景보다는 向을 상대적으로 더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누정의 수평각은 사찰에 비해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 누정의 경우는 주시점장의 정면에 주차경이 위치해 있어 수평각이 0° 로 나타난 곳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주경을 차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정의 좌향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차경이 되는 곳은 이미 누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자연형성 과정의 소산이고 누정은 그 이후에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도록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Fig. 11, 12, 13은 사찰 및 누정의 작성시 차경구조의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남원 實相寺의 경우 12.5km 밖의 천왕봉을 주차경 대상으로 취하고 있으나 24° 의 수평각으로 비교적 소극적인

Table 6. Analysis of horizontal degree

Degree(°)	Class		Remark
	Pavilion	Temple	
0	15(50.0)	1(3.3)	
0~ 5	3(10.0)	6(20.0)	
6~10	6(20.0)	1(3.3)	
11~15	2(6.7)	4(13.4)	
16~20	2(6.7)	3(10.0)	
20~	2(6.7)	15(50.0)	



Fig 11. View of Chowangbong from Silsangsa.



Fig 12. View of Moaksan from Namgyejung.



Fig 13. View of Duktaesan from youngmojung.

借景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누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借景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완주군 南溪亭의 경우 3.1km 밖의 모악산 정상을 주차경 대상으로 삼고자 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난다. 이러한 의도는 진안의 永慕亭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영모정의 주차경 대상은 3m 앞의 계천으로 파악하였으나 오히려 3.5km 전면의 덕태산 정상이 영모정의 좌향과 조망축과 일치하면서 仰瞻되는 양상으로 덕태산 산봉을 원림경관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연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영모정 건립시 시각적 종점(visual terminal)으로, 원림경관을 조영하기 위한 차경요소로 덕태산 산봉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기 결과를 통해 사찰에 비해 누정에서 적극적 차경의도를 가지고 경관을 조영한 것을 볼 때 설정 가설 2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3.2.4. 向과 차경구조와의 관계 분석

연구대상지에서 향과 차경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정리한 것이 Table 7과 같다. 정자에서 남향을 좌향으로 하는 곳이 12개소(40.0%)인 반면 사찰에서는 17개소(56.7%)로서 사찰은 살림집의 경우¹⁴⁾와 같이 남향을 고려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자는 사찰에 비해 남향을 고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수평각이 0°인 곳이 15개소(50.0%)로써 借景요소를 고려한 비율이 높음으로 나타나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달리 借景요소를 더 비중있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借景 내용분석

3.3.1. 주차경요소 분석

주차경요소를 분석 정리해 보면 Table 8과 같다. 누정의 경우 강·계류가 13개소(43.4%), 산·산봉이 11개소(36.7%), 인공지원이 3개소(10.0%), 들·뜰 1개소(3.3%) 그리고 자연경물(瀑布) 및 저수지가 각각 1개소(3.3%)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사찰에서는 산·산봉이 26개소(86.7%)로 월등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들·뜰 2개소(6.7%), 자연경물(岩)이 1개소(3.3%)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고찰한 입지유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누정의 주차경요소는 상대적으로 다양함을 엿볼 수 있는데 비해 사찰에서의 주차경요소는 상당히 단순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자의 입지 및 좌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궁극적으로는 차경대상을 일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한 결과이며 특히 江岸이나 평지에서 계류 및 주변 산림경관을 聚景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배려되었음을 보여준다.

누정의 주차경요소 분석결과는 전남을 대상으로 한 정동오³⁾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호남지역 정자에서의 조망대상이 거의 전형화된 모습이라 보여진다.

사찰의 경우 불교도입 초기에는 도심이나 평지부에 그 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입지를 산으로 옮기게 된 것과 관련지어볼 때 차경주대상이 주로 산과 산봉으로 나타난 것이다. 누정의 경우는 주차경대상이 산·산봉, 강·계류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외에 인공지원, 자연경물, 저수지 등도 몇 개소씩 나타나는데 비해 사찰은 산·산봉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¹¹⁾

이에 비해 상주사에서는 읍내의 다망뜰이, 고림사에서는 진안읍내가 주차경 대상으로 전개된다. 누정은 주차경 대상의 다채로움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 사찰의 경우 산지에 입지하다 보니 산이 가진 형식적 조건을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 구현을 위한 잠재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¹⁾

누정은 인간이 자연속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일치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정신수양과 후학양성 그리고 문학적 토론의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bearing and borrowed landscape

Class	Frequency(%)	
	Pavilion	Temple
Bearing		
E	9(30.0)	8(26.7)
W	5(16.7)	4(13.3)
S	12(40.0)	17(56.7)
N	4(13.3)	1(3.3)
Horizontal degree 0°	15(50.0)	1(3.3)

Table 8. Main subjects of borrowed landscape

Subjects	Class	Frequency(%)		Remark
		Pavilion	Temple	
Mountain		11(36.7)	26(86.7)	
River		13(43.4)	0(0.0)	
Field		1(3.3)	2(6.7)	
Pond		3(10.0)	0(0.0)	
Rock		1(3.3)	1(3.3)	
Reservoir		1(3.3)	0(0.0)	
Sea		0(0.0)	1(3.3)	

場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동양삼국 중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정자는 특히 외부지향적 특성이 농후하다고 알려진 바 일본 정원에서도 경관차용기법을 사용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이 마치 정원의 무대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누정처럼 자연경관이 차경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례로 남원 蠶岫亭에서 이러한 정자의 다채로운 이용 및 활용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蠶岫亭은 원천폭포를 주차경 대상으로 삼은 정자로서 흰 물줄기와 푸른沼가 눈 아래 조망된다.沼의 끝여울의 물흐름도 아름다우며 용머리 형상의 바위 한 점이沼에 내려져 있다. 19C 후반 작성된 이 정자에서는 蠶岫亭 八景詩가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오고 있다.

- 제1경 靈帝閑雲, 제2경 宿星暮雨, 제3경 月峰落照, 제4경 彌勒石佛
제5경 長法脫霞, 제6경 龍湖霽月, 제7경 長安牧笛, 제8경 龍宮瀑布

이러한 팔경의 선정에는 경관주체가 景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景 속에 인간이 함께 하는, 자연에 몰입되는 속에서 객관적인 관찰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는 計成이 논한 借景의 주요 원칙 중 「시간성의 강조로서 借景의 대상과 내용이 通感的이며 공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인 극면도 포괄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구름과 비, 낙조, 달, 노을 등의 일시적 경관현상과 함께 석불, 폭포 등의 물리적 요소 그리고 목동의 피리소리 등의 청각적 요소와 시간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누정공간이 聽과 景의 交融을 통한 意境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정한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누정에서는 사찰과 달리 적극적으로, 단순히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를 꾀하기 위한 경관체험 기획의 場으로써의 역할이 제

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3.3.2. 부차경요소 분석

부차경요소 분석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누정의 경우 산·산봉이 24개소(80.0%), 강·계류가 3개소(10.0%), 들·뜰 2개소(6.7%), 그리고 특별한 부차경요소를 지적할 수 없는 경우가 1개소(3.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찰은 산·산봉이 22개소(73.4%), 부차경요소를 지적할 수 없는 곳이 6개소(20.0%) 그리고 들·뜰과 자연경물이 각각 1개소(3.3%)로 나타났다.

이는 누정의 주차경요소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강·계류와 더불어 부차경요소로 산·산봉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찰은 주차경요소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차경요소 분석에서도 산·산봉이 가장 많이 나타남을 볼 때 이는 앞서 언급한 같이 사찰이 주로 산지에 입지하는 입지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앞서 누정과 사찰을 유형별로 분류한 Table 6과 Table 7의 내용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누정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江溪沿邊形(江岸形)과 山頂形(丘上 또는 山腹形), 사찰은 山地形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임을 보면 알 수 있다.

3.3.3. 차경매체 분석

누정 및 사찰의 원내차경 및 차경매체를 각 공간의 건립시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고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간 여러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 보여지는 주요 차경매체에 대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음은 매우 아쉽다 할 수 있다.

차경매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누정의 경우 차경매체가 없는 곳이 13개소(43.3%)로 가장 많았고, 수목이 11개소(36.8%), 건물·담이 4개소(13.3%) 그리고 수목·인공물, 인공물이 각각 1개소(3.3%)로 나타났다. 누정공간에

Table 9. Secondary subjects of borrowed landscape

Subjects	Class	Frequency(%)		Remark
		Pavilion	Temple	
Mountain		24(80.0)	22(73.4)	
River		2(6.7)	1(3.3)	
Field		3(10.0)	0(0.0)	
Pond		0(0.0)	1(3.3)	
Rock		0(0.0)	0(0.0)	
Reservoir		0(0.0)	0(0.0)	
Sea		0(0.0)	0(0.0)	
None		1(3.3)	6(20.0)	

Table 10. Medium subjects of borrowed landscape

Subjects	Class	Frequency(%)		Remark
		Pavilion	Temple	
Tree		11(36.8)	5(16.7)	
Building(樓, 堂, 門)		0(0.0)	12(40.0)	
Building/Wall		4(13.3)	3(10.0)	
Tree, Pagoda, Bell		1(3.3)	1(3.3)	
Pagoda, Bell		1(3.3)	1(3.3)	
Tree, Wall		0(0.0)	1(3.3)	
None		13(43.3)	7(23.4)	

서 차경매체로 주로 등장한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밖에 배롱나무 및 버드나무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비해 사찰은 주로 전면부의 건물(樓, 堂 등)이나 측면부 건물이 12개소(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차경매체가 없는 곳이 7개소(23.4%), 수목이 5개소(16.7%), 건물·담이 3개소(10.0%), 수목·인공물, 인공물, 수목·담이 각각 1개소(3.3%)로 나타났다.

이는 누정의 경우에 주시점장에서 차경매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누정의 입지성 자체가 借景 주제와 거의 일치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 수목이 차경매체가 되는 경우에도 수목으로 인해 시야가 가리운다거나 조망에 지장이 없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누정의 근연부에 정자목 등을 식재함으로써 여름철의 녹음효과를 꾀하는 동시에 차경축 방향으로 수직적 매체인 수목을 도입함으로써 경관의 심도와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관연출(progressive realization)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관처리기법으로서도 유효하였다고 본다. 또한 건물·담도 너무 높아서 시야를 가리거나 조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낮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사찰의 경우는 사찰 전면부의 樓, 堂, 중루, 석탑, 담장, 일주문 등 건물이나 측면부 건물이 차경매체가 되는 경우가 주로 많았다. 즉 이는 사찰이 갖는 교리적 상징성의 표현으로서 조성된 석조조형물 등이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 표현성에 관계없이 차경매체로서 자리하게 됨에 기인된다고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누정은 차경매체로 노거수목의 도입이 월등히 높은 반면 사찰의 경우는 인공적인 건조물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지적 특성은 물론 수도를 위한 생활적 측면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도 살펴봄이 좋을 듯 싶다. 사찰의 경우 주로 산지형이 많고, 전면부에 본전 좌·우측에 부속건물이 배치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누정에 비해 건물이 차경매체로 매우 인공적이며 다채로운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結 論

본 연구는 누정 및 사찰에 있어 차경구조의 특성과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전라북도내 역사성과 전통성이 비교적 잘 보전된 누정과 사찰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전통적 차경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통정원에서의 경관처리기법의 이해와 그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1) 주시점장의 좌향을 분석한 결과, 누정 및 사찰 모두 남향을 중심으로 한 향이 많이 나타났지만 누정의 경우 북향을 중심으로 북동, 북서향이 23.3%로 밝혀진 것은 사찰의 경우보다 더욱 적극적인 차경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에서의 건물좌향은 입지성과 불교의 교리적 원리에 순응한 소극적인 환경이 대부분 표현되고 있는 반면, 누정에서는 다채로운 경관 요소의 도입을 위한 聚景과 多景은 물론, 경관조망이 양호한 시점 및 시점확보를 위한 배경설정과 框景 등을 통한 품위 있는 경관의 추구 등 적극적 경관도입을 위한 차경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
- 2) 借景의 구조분석 결과, 차경 대상까지의 거리는 사찰공간의 차경구조가 누정과 비교하여 거리가 비교적 원경의 경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적 영향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누정의 경우에는 시각적 영향권은 물론 경관지배적 영향권 그리고 즉물적 영향권 등 다양한 조망경관에 대한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다. 차경대상에 대한 조망각도는 시선의 시각방향에 따른 仰借와 俯借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누정은 俯借를 사찰은 仰借를 통해 차경을 꾀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에는 누정과 달리 비교적 소극적인 조망각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각 분석에서 사찰은 누정에 비해 월등히 큰 수평각을 보였다. 사찰은 살림집의 경우와 같이 남향을 고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고 정자는 사찰에 비해 남향을 고려한 비율보다는 오히려 수평각이 0°로 나타난 곳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달리 누정은 차경요소를 더 비중있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借景 내용에 있어서 누정의 주차경요소는 다양함을 엿볼 수 있는데 비해 사찰에서의 주차경요소는 산악과 산봉 등 극히 단순함을 발견할 수 있다. 부차경 분석에서는 누정은 주차경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강·계류와 더불어 부차경에서는 산·산봉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찰은 주차경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차경 분석에서도 산·산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차경매체 분석에서는 누정의 경우에는 주시점장에서 차경매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경 요소가 보이는 곳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목 등 자연적 요소가 많음에 비해 사찰은 경내 건

물 등 인공적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누와 정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과 누정공간과 사찰 공간의 비교를 취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누정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및 선행연구가 있으면 이에 준하겠으나 본 연구는 차경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수의 연구대상을 택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대상 중 누란 명칭을 취하고 있는 곳은 3개소에 불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찰 내부에 누정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연구의 목적은 건축구조나 형태에 따른 비교 보다는 차경에 관한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3년 우석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 1) 이유직, 1997, 園治에 나타난 計成의 원림조영이론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2), 117-134.
- 2) 이유직, 1997, 計成의 園治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56pp.
- 3) 정동오, 1986, 전통적인 정자원림의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5), 25-

- 38.
- 4) 안계복, 1991, 한국의 누정양식상 제특성 및 계획이론에 관한 연구-특히 경관처리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9(2), 1-11.
- 5) 문영숙, 김용기, 2002, 면양집 분석을 통한 면양정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 학술논문발표회, 54-63pp.
- 6) 홍광표, 1996, 동양조경사 사찰조경편, 기문당, 289-324pp.
- 7) 이유직, 황기원, 1995, 計成의 『園治』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3(2), 223-241.
- 8) 이유직, 조정송, 1996, 중국정원의 미학 -조영과 감상의 미적 경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4(3), 79-95.
- 9) 進士五十八, 1986, 『借景』에 관한 研究, 造園雜誌 50(2), 77-88.
- 10) 박연곤, 1989, 빛깔있는 책들 102-6 한국의 정자, 주식회사 대원사, 68-114, 127-128pp.
- 11) 김용기, 홍광표, 이상윤, 심창진, 2000, 사찰의 지형처리요소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 한국정원학회지, 18(2), 26-38.
- 12) 條原修 外, 1982, 『新體係土木工學 59 土木工學』, 枝報堂出版, 28, 91pp.
- 13) 강병기, 최종현, 임동일, 1996, 전통공간사상에 관한 연구(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1(1), 9-25.
- 14) 리신호, 오무영, 2001, 농촌마을의 살림집 좌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7(2), 30-31.